

순천3114온누리콜센터 개소 1년...시민소통 창구로 큰 호응

온누리콜센터 개소 1주년 맞아 성과 보고회 개최

16만1928건 민원 상담...코로나19 관련 27.5% 최다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1일 개소한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이하 온누리 콜센터)가 시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1일 온누리콜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순천시 민원행정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콜센터 우수 상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온누리콜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16만 1928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직접 민원 상담을 하는 원스톱(One-Stop)전화의 처리비율은 개소 당시 46.5%였으나 현재는 63.2%로 상승해 전화돌림, 반복설명, 무응답, 불친절 등 시민들의 겪는 민원전화 불만사항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상담 분야 비율은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27.5%, 일반 행정 분야 16.8%, 지방세 관련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관련 문의사항이 급증해 지난 1월에는 하루 1130건이 넘는 민원 상담을 처리하기도 했다.

순천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소 1주년을 맞이한 온누리콜센터가 민원인과의 첫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불편한 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5060 은퇴(예정)자 대상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개강

국민연금공단 협업 '100세 시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기'



광양시는 은퇴(예정)자 대상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은퇴·노후 설계교육을 통해 광양시에 정착한 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6일까지 총 6회차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은 ▲광양시 인구 현황 및 은퇴자 정책 알기 ▲생애 4대 영역(건강·여가·관계·재무) 관리방법 ▲재취업 성공 전략 ▲노후

설계 실천 ▲은퇴 후 아름다운 삶을 위한 전략 등 15시간 동안 진행된다.

11월 1일 개강한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은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의 광양시 인구 현황 및 은퇴자 정책 소개 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이세현 노후 준비 전문강사의 '100세 시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사례 중심의 노후 연금 준비방법 등 은퇴 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광양시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고맙다"며, "앞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내가 사는 이곳 광양에서 제2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전했다.

다음 교육일인 11월 8일 2회차 교육에서는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생애 4대 영역 중 '건강·여가·관계 관리법'을 알아보는 '심커리어' 과정이 진행된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천문과학관 개기월식 특별 관측회 운영

8일...2~3년에 한번 관측 가능

고흥군은 11월 8일 특별한 천문현상인 '개기월식'을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특별 관측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위치하면서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같은 지역에서 통상 2~3년에 한 번 정도 관측 기회가 생긴다.

거대한 광원인 태양에 의해 마치 여러 개의 조명을 켜 둔 것과 비슷한 효과로 지구의 그림자는 진한 부분과 옅은 부분으로 나뉘는데 옅은 부분으로 달이 들어가는 것을 반영식, 진한

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이 부분식과 개기식이란다.

반영식 때는 달이 살짝 어두워지는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기 때문에 천문과학관에서는 부분식과 개기식 과정만 관측을 진행한다.

8일 개기월식은 오후 5시 19분에 보름달이 떠서 저녁 6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달의 한쪽이 어두워지는 부분식이 시작되며, 저녁 7시 16분에 달 전체가 어두워지는 개기식이 시작되어 밤 8시 40분경에 서서히 달이 밝아지면 서 밤 9시 50분 정도에는 다시 달이 밝게 보이게 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보성경찰에 교통안전 물품 1000개 제작 전달

범군민 교통안전 협업 강화...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배부

보성군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성경찰서에 교통안전 물품 1000개를 제작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교통안전 용품은 야광조끼 300벌, 볼펜 300개, 야광반사판 200개, 옐로카드 200개 등 총 1,000개로 인지도가 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했다.

향후, 보성경찰서는 군에서 전달받은 교통안전 물품을 어린이 등·하고 교통지도 및 현장 순찰 시 교통약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성호 안전건설 과장은 "군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범군민 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1번지 보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역민의 선진 교통 의식을 정착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보성=기동취재본부

여수 쌍봉동, '찾아가는 동네한바퀴' 자원재활용 앞장

주민센터 직원과 사회단체 회원, 8월부터 재활용 홍보 캠페인 총 33회 집중 전개

여수시 쌍봉동 직원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자원재활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환경포인트로 바꿔주는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활성화를 위해 통장단과 주민자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페트병,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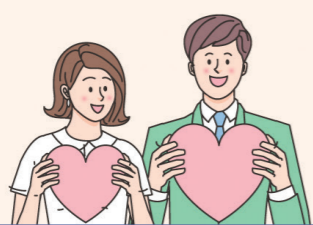
수거기(수퍼빈) 이용 등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동 직원들과 함께 전통마을, 상가, 원룸촌 등을 돌며 총 33회에 걸쳐 '찾아가는 동네한바퀴'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쌍봉동에 따르면 캠페인 결과 주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현재까지 투명페트병 8,000개, 서적 1,400kg, 유색페트병 90kg 등 총 1,700kg 이상의 재활용품을 자원순환 가게에 전달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